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오주승



헌법학자들이 나섰다. 군사독재시대 시국성명 얘기가 아니다. 바로 한달 이상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다.

헌법 고수 35명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행태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는 것은 헌정의 현실을 더욱 심각한 위헌상태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재판자들이 표결을 통해 뚜렷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하는 성숙한 민주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헌법의 이념으로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략으로 왜곡된 인준과정

헌법학자들이 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나왔을까. 헌재소장 인준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되면서 헌법수호기관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또 절차상 문제가 헌재소장 인준이라는 근본적인 사안을 뒤엎고 정적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작용

했을 것이다. '전효숙 사태'의 본질은 그가 헌재소장으로 적합하나를 국회에서 판단해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다. 그가 만일 도덕성이나 정의감, 학식, 경력 측면에서 현재 소장으로서 합당 미달이면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다.

전효숙 인준 투표 미루지 말라

결과적으로 헌재 소장 인준을 둘러싼 쟁점들은 '전효숙'이란 인간 자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헌법학자 하영철(명지대) 교수가 "전효숙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아닌 헌법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기관,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전효숙 논란은 각 정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선 그어야

한나라당은 논외로 치자. 그들이 대선을 앞두고 서진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의식 저류에는 다른 나라의 쿠데타를 빚어 '쿠데타' 운운하는 독재향수병적 발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곡된 헌법 해석을 한다고 해서 타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야 3당 중재인'을 이끌어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혹 '탄핵의 추억'이 있는지도 모른다. 탄핵 심판에서 노 대통령 손을 들어줬던 전 후보자에 대한 앙금, 그리고 그에 대한 일종의 복수(?) 같은 것 말이다.

다른 정당은 몰라도 민주당은 전 후보자 인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법치의 근간인 헌법이 쿠데타에 희생당했을 때도 정통 야당의 맥을 이어왔던 민주당이 '쿠데타' 운운하는 한나라당과 동조해서 되겠는가. 민주당이 헌법수호기관 장기 공백의 조연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부장 joh@kwangju.co.kr>

시설

국민 혈세로 '돈 잔치' 벌인 금융공기업

국책 금융기관과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입돼 희생한 금융기관의 경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갖 편법을 동원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가혹한 각종 수의계약 등을 통한 '배불리기식' 경영에다 자사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받 먹듯 하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갈 데까지 간 이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내내적으로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인 셈이다.

감사원이 밝힌 국책은행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은 한마디로 방만한 자체다.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우리 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이 12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금융공기업의 평균 연봉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았다. 일반기업이나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아웃소싱을 한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이 6천만원을 넘고 9천100만 원인 사람도 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심지어 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입차사택을 직원들에게 무상지

금융공기업이 어떻게까지 방만 운영을 하도록 그동안 금융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재정부와 금융위,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국책은행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등산 생태복원사업 이제 시작이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일대 생태복원사업이 대표적 친환경 복원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가 무등산 정상 부근 군부대 이전지와 원효사지구 등에 대한 생태복원을 추진한 결과, 최근 '제2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지 선정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것이다.

광주 생태복원사업은 행정기관과 학계, 시민단체의 합작품이라는 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무등산보호단체와 전문가 등이 생태복원에 앞장섰고 광주 시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무엇보다 '무등산은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생태복원 현장에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무등산이 생태복원 명소로 부상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업 추진 10년만에 거둔 성과는 무등산 제모습 찾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밖에 없다. 예전의 무등산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상 부근에는 군부대가 주둔한데다 방송·통신시설이 난립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해왔다. 원효사지구도 상가와 주택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불쌍사나웠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군부대 일대는 잡초와 역새, 싸리, 철

죽, 아생화 등으로 단장됐고 등산객을 위한 목재 탐방로도 개설됐다. 외지인들은 안내관을 보고서야 이 곳이 군부대 주둔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원효사지구도 각종 나무가 들어섰고 등산객을 위한 휴식처로 변모했다. 무등산 생태 복원사업은 행정기관과 학계, 시민단체의 합작품이라는 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무등산보호단체와 전문가 등이 생태복원에 앞장섰고 광주 시도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무엇보다 '무등산은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無等鼓

'나는 천의 한쪽 끝을 잡고 어머니는 다른 한쪽 끝을 잡은 채 벌건 솟불을 담은 다리미로 천을 다린다. 끝도 없는 긴 천은 한참이 지나서야 다 다려지고 그 천은 아버지의 외출용 바지 저리대로 제단된다.'

들을 빨래와 다리미질은 거꾸(?)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다. '드라이론(Driron)'으로 명명된 이 기계는 침대 시트와 양말에서부터 속옷에 이르기까지 천이라 천은 모두 다려준다.

그 옛날 시골집의 다리미 풍경이다. 다리미질을 비롯 옷을 지어내는 일은 아낙네들의 전유물이었고 다듬어질 시대를 지나 다리미질 시대에 접어들자 솟불을 담은 뚜껑없는 다리미가 사용됐다. 다리미질이 끝날 때까지 입으로 불어 솟불을 살리고 불티를 불어내는 불편도 뒤따랐다. 이후 손잡이와 뚜껑이 달린 다리미가 나와 그런 불편을 어느

기계가 2시간 동안 돌고나면 옷이 마르고 반듯하게 주름이 퍼진다. 열로 옷을 말리고 여기서 나오는 증기로 주름을 없앤다. 그러나 다리미질에서 해방되는 대가는 싸지 않다. 1대당 200만원



을 호가한다. 그런데 정도 될 수 있었다. 한복 저리도 깎아내리는 동정 등 보다 정교한 다리미에는 인두가 투입되기도 했다. 1936년 에디슨이 전기다리미를 발명함으로써 아낙네들은 비로소 솟불을 일구고 불티를 불어내는 불편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빨래를 말려 다리미까지 해주는 기계가 스페인에서 제작돼 주부

도 제작사는 스페인에서 비롯된 유럽에 맞붙이 부부가 많아 3년내에 400만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의 주부들도 빨래와 다리미질이라는 번거로운 가사에서 벗어나 윤택한 생활과 여가를 즐길 날도 머지않은 듯

한다. /김우승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신희. 얼마 전 광주 아시아 문화 전당에 건립될 공연장에 대한 발표를 보면, 역시나 우리 나라 행정가들께서는 규모를 강조하고 나선다. '몇 천석 규모의 아시아 최대 공연장으로 짓겠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야 큰 차, 큰 집을 선호하고 유럽 리 큰 것을 좋아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공연 문화를 자주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필자는 이 기사를 읽으며 격정이 우선 앞섰다. 규모가 큰 공연장은 광주에도 많다. 규모대로 따지자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만한 곳이 있을까? 아니 더 큰 공연장이 광주에는 또 있다. 월드컵이 남겨준 선물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공연 문화의 실 수요층이

기고 송계축. 1967년 '6일전쟁'이라 부르는 중동전쟁은 여러 가지로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 전쟁에 대해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얘깃거리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 청년들의 애국정신이다. 아랍 국가들의 청년들은 본국 귀환을 두려워 해 몸을 숨기거나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은 조국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조국으로 달려가 나라를 구했다는 내용으로 애국정신의 귀감처럼 전해지는 얘기가. 이스라엘 청년들보다도 16년이나 앞서 우리 재일동포의 아들들이 재일학도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종전통화의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

담배꽂초 차밖에 버리는 양심없는 운전자들.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하거나 업무 때문에 국도를 지나다 보면 중앙 분리대 인근에 쌓여 있는 담배 꽂초를 쉽게 볼 수 있다. 차량 외에 지나다니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이 운전 중 피우다 버린 것들이다. 광주에서 남평 방면으로 가는 국도변은 특히 심하다. 교통 체증으로 도로가 막혀 짜증이 나 피우다 버렸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재떨이가 없는 차량은 없다. 자기 차 깨끗하게 하려고 밖에 버리는 것으로밖에 볼

학생들 교육 위해 컴퓨터 보안 연필 이용하게해야.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에 다니는 아이들 글씨체가 너무 나빠 여간 걱정스러울 것이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도 비슷한 것 같다. 알아 보기 힘들 정도의 못생긴 글씨를 쓰는 아이들이 많다. PC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직접 글씨를 쓰는 대신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는 것이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컴퓨터로 숙제를 하게되어도 된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들어간 뒤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글씨체가 엉망이고 고쳐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